

# 경제

Biz & Economy

10 광주일보

제17591호 2006년 11월 2일 목요일

주가	환율	금리
+9.80 1,374.35 (코스피지수)	-2.80 939.50원 (원/달러)	-0.05 4.66%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94.70 (+8.60)	
다우 (31일)	12,080.73 (-5.77)	
나스닥 (31일)	2,366.71 (+2.94)	
닛케이	16,375.26 (-24.13)	
엔-달러 환율 (도쿄 17:00기준)	117.04엔 (-0.64)	
유로 달러 환율	1.2760달러 (+0.33)	
3년만기 회사채	4.97% (-0.04)	
플금리	4.45% (-0.03)	



## 광주국제청 우수 세무서 표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은 1일 올해 민원분야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3개 관할세무서를 표창했다. (사진) 북광주·서광주·광주·해남세무서 등은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 '방문민원 증명발급'을 축소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인터넷증명 발급요령을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세무서 방문 않고 세금 납부 신고

### 호남 '홈택스 서비스' 이용률 전국 최고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홈택스 서비스 이용률이 전국에서 광주와 전남·북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춘기)에 따르면 법인세의 전자 신고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04년 광주청이 98.3%, 2005년 99.0%, 2006년 99.0%로 전국 6개 지방국세청보다 높았다.

종합소득세의 전자신고는 광주청이 2004년 56.7%, 2005년 89.5%, 2006년 93.8%로 전국 1위였으며 부가가치세도 광주청이 2003년 24.3%에서 2004년 58.7%, 2005년 73.3%, 2006년 79.5%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을 전자신고함으로써 시간절약과 함께 교통비, 국세청이 지불해야 하는 용지대, 우편료 등 경제적 절감효과가 2003~2007년 5개년 동안 1조 5천억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신화학물질관리제(REACH) =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 EU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WEEE나 RoHS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환경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 EU 또 무역장벽 ...내년 상반기 신화학물질 규제 발동

# 광주·전남 수출업계 비상

유럽연합(EU)이 수입공산품에 대해 각종 규제를 만들면서 광주·전남지역 내 관련업체들의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EU는 지난 7월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시행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중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발동할 예정이어서 지역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ACH가 도입되면 국내 수출품의

경유 단일 화학물질은 물론 자동차·전자제품·석유화학제품 등 완제품에 포함된 에틸렌·나프타·염화나트륨 등 일반 화학물질까지 모두 국제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자료를 첨부해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대상물질은 제도시행 후 1년 이내(2008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분석결과자료는 환경유해물질의 경우 2010년까지, 일반 화학물질의 완제품의 경우 2010년(1천t 이상)과

2013~2018년(1천t 미만)까지 제출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화학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GS칼텍스, 한화석유화학 등 여천산업단지 10여개 입주기업들은 물론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등 자동차와 전자제품 수출업체들도 REACH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편 RoHS는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환경문

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 장비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런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PBB 및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국의 대 EU 가전수출은 연간 18

억~19억 달러 규모로, EU의 각종 지침이 적용되는 가전제품은 전체의 70%에 달한다"면서 "이같은 지침은 우리 업계에게 회수·재활용망 구축 등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저하와 공정개선 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 사전대비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중기청은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물질 분석능력 검증사업에 참여, 분석능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삼성전자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수많은 규제유해물질 분석수요에 대비,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베컴모자' 인기

형경으로 만든 두건모양의 비니모자(일명 베컴모자)가 젊은이들 사이에 마니아층을 형성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멀티플리자매장을 찾은 고객이 캐주얼 의류와 어울리는 비니모자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수완 땅값 부풀리기 사실무근"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경실련 보도자료 반박

### "택지 가격엔 세금·이자비용 포함 시켜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수완지구 아파트 공급업체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완지구 건설사들이 택지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광주경실련측의 주장은 명백한 근거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완지구 택지분양가 차액 관련 보고-1에 대한 반박"이란 제목의 보

도자료를 통해 "광주경실련은 해당 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한 원가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만을 토대로 택지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액을 산출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업체들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택지분양가 논란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분양가 산정 시

점은 '입주자모집공고' 때라고 규정된 현행 주택법 '제38조의2'를 경실련이 숙지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공표함으로써 발생했다"며 "주택법상 분양가중 토지비용은 토지매입 당시부터 분양공고시까지 추가되는 각종 세금과 비용, 이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서도 업연한 공식서류인 만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업체측의 반박자료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 광산업 등 '전략산업 펀드' 나온다

### 80억 규모 조성 운영

광주지역 광산업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운영된다.

광주시는 1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광주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0억원 규모인 이 펀드는 시의 주요 전략산업인 광산업 관련 업체에 50% 이상을 지원한다.

광주시가 4억원, 광주은행과 산업은행이 각 10억원, 한미열린기술투자 11억원, 하나증권 5억원 등 40억원과 정부가 출연한 모태조합펀드에서 40억원을 출자한다.

한미열린기술투자(주)가 오는 2012년까지 7년간 위탁 운영을 맡았다.

시는 2001년 1호 펀드인 '빛고를 벤처투자조합 펀드'(40억원)를 조성, 운용중이며 지금까지 6개 업체에 28억원을 투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농협, 벼 매입자금 5,000억 지원

### 광주·전남 1,137억 투입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지역농협의 자체 벼 매입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벼 매입자금 1천137억원(전국 5천억원)을 무이자로 1일부터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전남도내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8만7천톤 감소한 620만3천톤, 수확기 출하물량은 328만톤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중 정부 공공비축물량 763만톤, 농협 계획물량 186만톤을 매입하고, 민간이 지난해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 수확기에 농가의 벼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확기 시장유통물량 과잉으로 쌀값하

락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 光銀 광양만권 입주기업 지원

광주은행은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역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조만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협약대출' 상품을 출시해 총 1천억원을 한도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용자 추천서를 받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신차용 타이어

### 크라이슬러사에 1차분 공급

금호타이어는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 크라이슬러사에 1차 공급분 2만5천본의 OE(Original Equipment·신차 장착용 타이어) 납품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타이어 '엑스타(EC-STA) KH11'는 주행성 조성이 높고 소음이 적은 비대칭 초고성능 타이어로, 크라이슬러 세브링 시리즈의 2007년형 모델 세브링 세단에 장착된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금호타이어는 미국 OE시장에 첫 진출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크라이슬러에 타이어를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장경동특사 초청

# 해남군 복음화 성회

"살아가는 이야기"

2006. 11. 4 (토) 오후 6:30 해남 우습실내체육관

호평서오, 환영합니다.  
국립대학에 장학금수혜자로서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초시에 관하여 장학금 수혜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어는 해남에 온이후의 생활과 장학금 수혜자로서의 경험과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주최: 광주 CBS 기독교방송 · 후원: 해남읍교회 · 주최: 해남읍교회 (061)5311-0388